

## 고대(古代) 성경사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일까?

성경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반발하곤 한다. “지금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계속 변해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반론은 사실인가? 현재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이 영감받은 저자에 의해 처음 기록된 글자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가?

### 1. 사본(寫本)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개관

구약성경은 원래 주전 1400년에서 430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기록

- 
- 1) 사실 무슬림 변증가들은 무함마드가 신구약 성경을 분명히 수용하기는 했지만 (Sūrah 3:3) 성경본문의 원형은 실제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함마드(주후 570-632년)의 생애보다 이른 시기에 필사된 완벽한 신구약 성경 사본들이 존재하며 이문(variant)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본들은 현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는 본문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되었다(아랍어로 기록된 부분이 약간 존재한다). 한편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주후 4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고대 문서의 원본은 오토 그래프(*autograph* 혹은 *autographa*)라고 부른다. 비록 수천 개의 고대 필사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경의 원본은 모두 소실되거나 분실되었다. 원본에 사용된 문자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본들을 비교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본문비평학(*textual criticism*)이라고 한다. 본문비평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16세기 유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첫째, 인쇄기가 15세기 중반에 도입이 되어 같은 책을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환경은 다양한 사본의 비교와 대조 연구를 위해서는 이상적이었다.<sup>2)</sup> 둘째, 당시 유럽에는 배움에 대한 중흥기가 도래하였고 결국 고대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문서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낳게 되었다. 셋째, 종교개혁과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은 학문적인 관심을 성경에 기울이게 해 주었다.

본문비평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9세기와 20세기 많은 고대 사본의 발굴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된다. 다른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문비평학 각론은 매우 복잡하다(예, 단지 고대 사본 하나를 해독하고 그 연대를 산정하기 위해 고고학, 고문서학, 언어학적인 감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지만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비평학의 도움으로 신구약 성경 사본이 신뢰할만한 과정을 통해 전수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심지어 탁월한 성경학자 카슨(D. A. Carson)은 신약성경 원본은 거의 96-97퍼센트의

2) 처음으로 (인쇄기로) 인쇄된 히브리 구약성경은 1488년에 등장했다. 최초로 인쇄된 헬라어 신약성경(콤플루툼 대조성경[*Complutensian Polyglot*])은 추기경 Ximenes의 후원으로 제작하여 1514년에 완성되었다. 최초로 출판을 위해 인쇄된 헬라어 신약성경은 1516년 Erasmus의 성경이었다. Paul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99), 266-67을 참고하라.

정확성을 가지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3)</sup> 게다가 본문비평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성경본문 중에는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본문은 없다. 다시 말해 모든 기독교 교리는 본문비평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본문의 도움이 없이도 확고히 정립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해결되지 않은 본문상의 문제들 대부분은 교리적인 의미가 거의 혹은 전혀 없는 것들이다.

현대 성경 번역본(예를 들면 ESV, NIV, NLT 등)은 중요한 이문들을 난외주에 표기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본에는…” 혹은 “대부분의 초기 사본에는…가 없다”는 식의 언급을 우리는 성경 지면 아랫부분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난외주를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본문비평학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대략 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2. 고대 문서의 복사

현대 문화는 의사소통 방식이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어서 이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보다 고대의 문헌 생산 방식에 대해 종종 회의적일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고대 유대 랍

3) Carson은 “거의 모든 본문비평가들은 헬라어 신약성경의 96 내지는 심지어 97 퍼센트가 경험적으로(morally) 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며 이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Who is This Jesus? Is He Risen?” D. James Kennedy와 Jerry Newcomberk 사회를 맡은 다큐멘터리 영상물 [Fort Lauderdale, FL: Coral Ridge Ministries, 2000]). 이와 유사하게 Klein, Blomberg, 그리고 Hubbard는 “현존하는 사본들로부터 원본 신약성경의 97에서 99퍼센트를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평가자들은 제안한다”고 말한다(William W. Klein, Craig L. Blomberg, and Robert L. Hubbard,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rev. ed. [Nashville: Thomas Nelson, 2004], 122).

비들과 초기 기독교 서기관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본문을 복사했다는 사실이다. 유대 서기관들은 정교한 체계를 따라 사본에 사용된 문자의 개수를 세고 우발적으로 이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했다.<sup>4)</sup> 마찬가지로 기독교 서기관들도 종종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복사본을 읽고 오류를 찾아내도록 할 정도로 굉장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손으로 필사된 사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문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구약 성경 고대 사본이 보여주듯이 사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 3. 구약성경

1947년 고대 유대교 문서를 은닉해 두었던 첫 번째 장소가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일화에 따르면 염소를 치는 아랍의 한 어린 목동이 동굴에 돌맹이를 던지자 항아리(두루마리 보관용 용기)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어 들어가 동굴을 살폈다는 것이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분명 유대교 종파 곧 사해 근처 유대 사막 지역에 분리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에세네파에 속한 것이었다. 이들이 주후 70년경 로마인들의 공격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했을 때 사본 수집물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은 현대 본문비평가들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여러 흥미로운 종파적 문서들과 외경 문헌들 외에도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약성경의 책들을 수록한 사본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들

4) Wegner,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167, 171-72를 보라.

사본들을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rolls)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문서들은 대략 주전 250년에서 주후 50년까지의 사본들과 사본들의 복사본을 포함한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 구약성경 사본은 레닌그라드 코덱(Leningrad Codex[주후 1008년])과 알레포 코덱(Aleppo Codex [주후 900년])였다. 그러므로 사해 두루마리는 히브리어성경의 사본상 증거를 1000년이나 앞당겨 준 것이다.<sup>5)</sup>

사본상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사해 두루마리는 히브리어성경이 매우 정밀하고 그리고 신뢰할만하게 복사되었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레닌그라드 코덱스(주후 1008년)과 사해 두루마리(주전 250년-주후 50년)에 보존되어 있는 구약성경 본문은 오늘날 현대 영어 번역본을 위해 사용하는 히브리어 표준 본문(base text)과 근본적으로 같다. 중요한 본문상의 차이점들은 때로는 약자 ‘DSS’(Dead Sea Scrolls)를 따서 앞으로는 현대 번역 성경의 난외주에 언급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알려진 모든 구약성경 사본과 차이점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역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오류들과 본문상의 차이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만 본질적인 메시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탈몬(Shemaryahu Talmon)은 주장한다.<sup>6)</sup>

고대 히브리 본문 외에 몇몇 다른 언어 - 헬라어, 라틴어 시리아어 등 - 로 번역된 구약성경의 고대 사본이 있다. 구약성경의 고대 번역

5) 그러나 많은 수의 70인역(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복사본 역시 레닌그라드나 알레포 코덱보다도 수백 년이나 오래되었다.

6) Shemaryahu Talmon, "The Old Testament Text,"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From the Beginnings to Jerome*, ed. P. R. Ackroyd and C. F. Ev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1:162.

본은 종종 난해한 히브리어 어휘나 구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본문들이 때때로 고대 히브리어성경에 나타난 이문 독법(variant reading)을 증언한다는 것이다 (곧 이들은 하나의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으로부터 번역되었다). 만약 이전 번역이 원본 히브리어성경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번역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 번역을 선택하거나 혹은 이문을 난외주에 삽입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관련된 성경 난외주들을 참고해서 해당 성경이 맞소라, 사해 두루마리, 헬라어(70인역), 혹은 시리아어 사본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 만약 여러분의 성경에 이러한 난외주들이 없다면 웹사이트 [www.bible.org](http://www.bible.org)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NET 성경(New English Translation)의 폭넓은 역자 주(註)를 참조해 보라.

#### 4. 신약성경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신약성경 문서가 필사되어 회람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골 4:16; 살전 5:27; 벧후 3:15-16). 이들 필사본의 숫자가 증가하고 복사에 복사를 거듭함에 따라 필사상의 어떤 공통점이 여러 동종 본문(text family) 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동종 본문은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분포에 따라 웨스턴, 알렉산드리아, 비잔틴, 가이사라 본문으로 구별된다. 헬라어를 사용했던 비잔틴 제국은 신약성경의 헬라어 사본을 더 많이 필요로 하였고 또한 생산해 내었다. 따라서 비잔틴 본문은 가장 많이 필사된 동종 본문이 되었다. 그러나 비잔틴 계열의 본문은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거나 가장 신뢰할만한

독법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본문 전승에 나타난 고대 증언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성경 원본의 기록에 다가설 수 있다. 동종 본문과 사본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독자는 고대 사본에 담긴 이문의 양과 중요성에 대해 선불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사본상의 차이점은 신약성경의 전체 통일된 메시지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중급 헬라어 학생들에게 본문비평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나는 본문비평학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오히려 성경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발견해 왔다.

현재 우리에게는 거의 6,000개에 달하는 신약성경 고대 사본이나 사본의 일부가 남아 있다<sup>7)</sup>(가장 유명한 사본 가운데 하나의 사진이 도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성경 사본 조각은 대략 주후 130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이렇게 많은 본문상의 증거는 어떠한 다른 고대 문서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고전에 조예가 깊은 브루스(F. F. Bruce)가 한 때 신약성경 본문상의 증거를 널리 알려진 고대 그레코-로마 시대 문헌과 비교한 적이 있다.

만약 다른 고대 역사적 작품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신약성경의 사본상의 증거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시저의

---

7) 가장 최근 통계로는 5,752개의 사본이 존재하며 매년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Daniel B. Wallace, "Challenges in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for the 21st Century," 복음주의 신약학회(ETS) 제6회 연례 정기모임 기조연설(Providence, Rhode Island, November 20, 2008). Wallace는 신약사본연구센터의 집행부 책임자이다([www.csntm.org](http://www.csnt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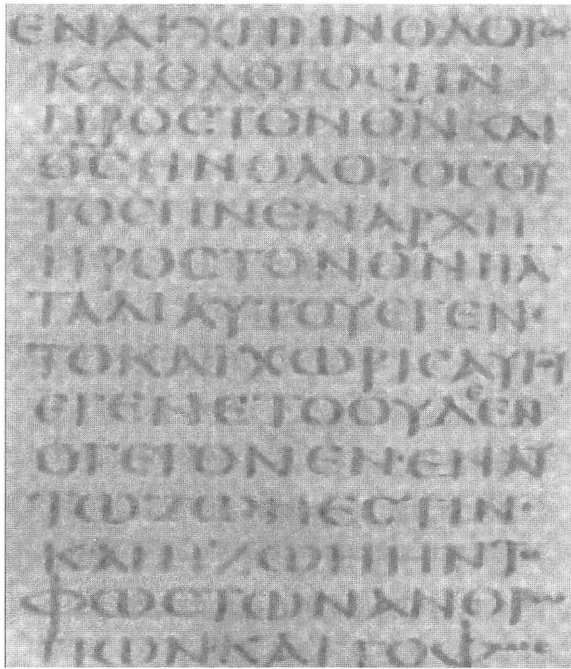
8) John 18:31-33, 37-38을 포함하고 있는 John Rylands 조각

『갈리아 전기』(*Gallic War*[주전 58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의 경우 MSS(*Manuscripts*[사본])가 소수 현존하는데 이 중 단지 아홉 내지 열 개만이 상태가 좋고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봐야 시저 당시보다 900년이나 이후의 것이다. 리비(Livy[주전 59년-주후 17년])가 쓴 『로마사』(*Roman History*) 백사십이 권의 책 중 오직 서른다섯 권만이 남아 있으며 이마저 스무 개가 채 되지 않는 다소 중요한 MSS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 중 iii-vi권 조각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MSS만이 4세기에 필사되었을 정도이다. 타시투스(Tacitus[대략 주후 100년])의 『로마사』(*Histories*)은 전체 열네 권 중 단지 네 권과 다른 한 권 책이 절반 정도 남아 있다. 열여섯 권으로 구성된 그의 『연대기』(*Annals*) 중 열 권은 완전한 형태로 두 권은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타시투스가 쓴 위대한 역사 작품 두 권의 현존하는 본문은 단지 두 개의 MSS에 의존하여 얻게 된 것인데 그 중 하나는 9세기, 다른 하나는 11세기의 사본이다. 또한 현존하는 그의 소품(*Dialogus de Oratoribus, Agricola, Germania*)의 MSS는 모두 10세기 코덱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다. 투시디데스(Thucydides[대략 주전 460-400년])의 『역사』(*History*)는 여덟 개의 MSS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며 가장 이른 시기의 사본은 대략 주후 900년경에 속한 것이며 몇몇 파피루스 조각들은 대략 기독교의 기원과 때를 같이하는 시기에 속한다. 헤로도투스(Herodotus[대략 주전 488-428년])의 『역사』(*History*)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비해 1300년 이상 이후의 것이므로 헤로도투스나 혹은 투시디데스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는 고전 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sup>9)</sup>

9) F. F. Bruce,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6th 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Grand Rapids: Eerdmans, 1981), 11.



도표 4. 시내산 코덱에서 취한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



시내산 코덱은 4세기 말 사본이다. 전체 사본을 보기 원한다면 아래 웹사이트로 가보라: [www.codexsinaiticus.org](http://www.codexsinaiticus.org)

## 5. 이문(Textual Variant)의 예

아래 몇 가지 예를 통해 고대 사본에 나타나는 이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비록 유사한 예들이 구약성경에도 있겠지만 다음 예들은 모두 신약성경에서 택한 것이다.<sup>10)</sup>

10) 이와 유사한 구약 관련 이문의 목록은 Wegner,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 1) 의도하지 않은 오류

한 통계에 따르면 본문상의 이문 95퍼센트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피로했거나 유능하지 못했던 필사가에 의해 별 의도 없이 만들어진 오류에 기인한 것들이다.<sup>11)</sup> 이러한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12)</sup>

### (1) 시각 오류

필사가는 때때로 복사하는 원본의 앞뒤를 살피며 작업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 많은 수의 시각 오류가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예를 들어 필사자들은 겉보기에 유사한 모양을 가진 글자들을 혼동하거나, 단어를 잘 못 나누거나(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 사본들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단어나 단락을 반복하거나(즉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해서 복사했다), 우연히 문자나 단어 혹은 단락을 빠뜨리거나, 혹은 한 단어의 어순이나 한 문장의 단어 순서를 바꾸었다.

### (2) 청각 오류

필사가는 받아쓰기(dictation)를 통해 사본을 복사할 때 (필사가는 하나의 사본이 낭독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썼다) 청각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종종 모음이나 이중모음, 혹은 다른 소리들을 잘못 들었다(영어를 쓸 때도 'knight'[기사]를 듣고 'night'[밤]라고 쓰는 식의 비슷한 실수를 한다).

---

180-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Arthur G. Patzia,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Origin, Collection, Text and Can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138.

12) 아래 소개한 글은 Patzia, *The Making of the New Testament*, 138-46에서 발췌한 것이다.

### (3) 글쓰기 오류

때때로 필사가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잘못 쓰게 되는 경우에도 본문상의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필사가가 실수로 어떤 단어의 끝에 문자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 경우 그 단어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

### (4) 판단의 착오

때때로 필사가는 여백에 기록된 주해(고대의 난외주)나 혹은 의도적이지 않은 다른 요소들을 잘못 본문과 통합시키는 경우가 있다.

## 2) 의도적인 오류

본문상의 이문 중 나머지 5퍼센트는 필사가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교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교정의 동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문법과 철자의 교정

문법과 철자를 표준화하려는 의도에서 필사가는 종종 복사 중에 발견하게 되는 철자법이나 문법상의 오류를 교정했다.

### (2) 유사 본문 사이의 조화

필사가들은 양식화된 표현에 일치하도록 병행 본문들을 조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여러 복음서들에 중복되어 나타난다면 그 사건의 세부사항이 어떤 복음서를 복사하든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중급 헬라어를 가르치면서 나는 학생들

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담긴 본문을 번역하면서 주나 그리스도라는 호칭도 아울러 사용하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곤 한다. 이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고등기독론에 입각한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은 다만 구주에 대한 양식화된 표현에 맞추어 말을 했을 뿐이다. 고대 필사가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 (3) 분명한 모순과 문제점 제거

필사가들은 때때로 그들이 본문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교정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본은 마가복음 1:2-3에 사용된 혼합본문(말라기와 이사야를 동시에 인용한 본문-역주)을 마가가 원래 사용한 ‘이사야’가 아니라 ‘선지자들’로부터 인용된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 본문과 모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질문 4(“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를 참조하라.

### (4) 본문의 융합

때로 필사가는 자신이 복사하고 있는 사본에 대한 이문독법(variant reading)을 알고 있는 경우, 그 둘을 융합하여 자신의 복사본에 함께 기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5) 다른 예배의식 전승의 채용

몇몇 고립된 장소에서는 교회의 예배의식(곧 양식화된 기도나 찬양)이 어떤 본문을 삽입하거나 혹은 표현을 바꾸도록 작용했을 수도 있다(예, 마태복음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6) 신학적 교리적 교정

때로 필사자들은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이유로 본문을 - 잘못된 것은 삭제하거나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덧붙이는 식으로 - 교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36의 경우 어떤 사본들은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다 - 이 본문은 분명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다.<sup>13)</sup>

물론 매우 많은 고대 문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문비평가들은 위에 열거된 이문들의 대부분을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 따라서 현대 영어 번역본에 대다수의 이문들이 열거될 필요는 없다. 궁금한 독자의 경우 사본 이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본문비평가들을 위한 참고 문헌이나 비평판 신구약 성경, 그리고 학문적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질문 13,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참조하라).

## 6. 초대 기독교 정통과 다른 고대 사본들

몇몇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의 저자들은 신구약 성경이 단지 고대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교리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의 신념만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고대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에는 경쟁적인 종교적 관점이 여럿 존재했다는 말이다. 어떤 관점

---

13) 몇몇 다른 본문(예, 요 4:6)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의 전지성이나 전능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성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승귀(exaltation) 이전에 자신이 가진 신적인 특권을 비우고 계신 것이라고 혹자는 주장한다(케노시스 이론).

(유일신론적 유대교 혹은 정통 기독교)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패자가 다시 시비를 걸 수 없도록 승자는 역사를 다시 썼다. 학문적 차원에서 이러한 관점은 바우어(Walter Bauer)의 『초대 기독교의 정통과 이단』(*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독일어 원전: 1934])에 의해 대변된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접근은 댄 브라운(Dan Brown)의 『다빈치 코드』(*The Da Vinci Code*)와 바르트 얼만(Bart Ehrman)의 『잘못 인용된 예수』(*Misquoting Jesus*)라는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근저에는 성경이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지지할 수 없는 책이라는 극단적인 회의주의가 짙게 깔려 있다. 이러한 일탈적인 관점을 꼼꼼히 반박하는 것은 이 책의 제한범위를 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 대럴 보크(Darrell L. Bock)이 쓴 『잃어버린 복음서』(*The Missing Gospels*[바우어 혹은 브라운에 대한 답변])와 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의 『잘못 인용된 진리』(*Jones's Misquoting Truth*[얼만의 『잘못 인용된 예수』에 대한 답변]) 그리고 크레이그 에반스(Craig Evans)의 『날조된 예수』(*Fabricating Jesus*)를 참조하라.<sup>14)</sup>

## 생각해 볼 문제

1. 이 질문을 읽기 전에 고대 신구약 성경사본의 전승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이었는가?

14) Darrell L. Bock, *The Missing Gospels: Unearthing the Truth Behind Alternative Christianities* (Nashville: Thomas Nelson, 2006); Timothy Paul Jones, *Misquoting Truth: A Guide to the Fallacies of Bart Ehrman's Misquoting Jesu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7); Craig A. Evans, *Fabricating Jesus: How Modern Scholars Distort the Gospel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2. 성경을 읽을 때 본문상의 이문을 다루는 난외주를 보는가? 왜 보는가? 혹은 왜 보지 않는가?
3. 성경 사본의 전승에 대해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인가?
4. 얼만(『잘못 인용된 예수』)이나 브라운(『다빈치 코드』)의 책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그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5. 본문상의 이문이나 본문비평학에 대해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가?

##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Bock, Darrell L. *The Missing Gospels: Unearthing the Truth Behind Alternative Christianities*. Nashville: Thomas Nelson, 2006).

Bruce, F. F. *The New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6th 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Grand Rapids: Eerdmans, 1981.

Evans, Graig A. *Fabricating Jesus: How Modern Scholars Distort the Gospel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Jones, Timothy Paul. *Misquoting Truth: A Guide to the Fallacies of Bart Ehrman's Misquoting Jesu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7.

Kaiser, Walter C. *The Old Testament Documents: Are They Reliable and Relevan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Wegner, Paul D.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1999.